

日本經濟 週間動向

[2014.3.8 ~ 2014.3.14]

제 108 호

목 차

1. 일본 국내경제 동향

가. 경제정책 동향

- ☐ 경제산업성) 2014년도 기준 신재생에너지 매입가격 결정
- ☐ 경제산업성)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‘소규모 기업 진흥 기본법안’을 각의 결정
- ☐ 경제산업성)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업인증제도 도입 계획
- ☐ 수산청) 일본 주변 어장의 참다랑어 미성숙어 어획량을 2015년부터 기준치보다 50% 감축 방침
- ☐ 부흥청) 복구교부금 제도를 정부 설정 복구기간(2011~2020년)에 준하여 5년간 연장 방침
- ☐ 경제산업성) 2014.5월부터 온천수발전에서 발전설비 보수·점검 기술자에 관한 규제 완화 계획
- ☐ 경제산업대신) 특허취득심사기간의 대폭 축소 방침을 표명
- ☐ 일본 정부) 개도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·의료사업 추진 기업 지원 계획

나.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

- ☐ 주간 경제지표(엔달러환율, 원엔환율, 닛케이평균주가지수, 장기금리) 추이
- ☐ 재무성) 2014.1월 국제수지(속보)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인 1조 5,890억엔이라고 발표
- ☐ 내각부) 2013.4분기 실질 GDP 성장률 개정치를 속보치보다 하향조정(전기대비 +0.2%, 연 +0.7%)
- ☐ 내각부) 2014.2월 경기관찰조사에서 선행판단 미가 40.0, 현황판단 미가 53.0이라고 발표
- ☐ 일본은행) 현행 금융완화정책을 지속, 경기 기초판단은 전월 판단 유지
- ☐ 내각부, 재무성) 2014.1분기 대기업 BSI가 12.7, 중소기업 BSI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(0.1)
- ☐ 내각부) 2014.1월 기계수주통계에서 ‘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’가 전월대비 +13.4%

다. 산업 동향

- ☐ 2014년 춘계노사협상) 주요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을 결정

2. 일본 대외경제 동향

가. 경제통상

- ☐ 한중일 FTA)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 종료
- ☐ TPP) 일본정부는 수산물 수입관세 철폐를 위해 검토 착수

나. 일본기업 해외진출

- ☐ 고베제강소) Paul Wurth사(룩셈부르크)와 제철 설비 사업 부문에서 제휴

3. 일본의 과학기술 동향

- ☐ 히타치제작소)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작업에 사용될 로봇 개발
- ☐ 이화학연구소) STAP 세포에 관한 논문 취하 검토중

1. 일본 국내경제 동향

가. 경제정책 동향

- 경제산업성은 2014년도 기준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매입가격을 결정(3.7)
 - △태양광발전은 가정용 37엔, 기업용 32엔으로 2년 연속 인하를 결정했으며, 신설되는 △해상풍력발전은 36엔으로 설정하였고, 여타 풍력발전(22엔), 수력발전(24~34엔), 지열발전(26~40엔), 바이오매스(13~39엔)는 12년도와 동일하게 설정
 - 또한, 태양광발전소 인증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용지 취득 및 패널 발주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(3.12)
-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(385만개사) 중 약 90%를 차지하는 소규모 업체(종업원 약 5명 이하)를 지원하기 위한 ‘소규모 기업 진흥 기본법안’을 각의 결정(3.7)
 - 소규모 업체가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
 - △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·서비스의 판로 확대, 신사업 참여 촉진, △경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개인의 능력 발휘 촉진, △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, △적절한 지원 시스템 정비
- 경제산업성은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업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(닛케이 3.8)
 - 동 제도를 통해 인증심사기관이 기업의 데이터 취득방법, 정보의 외부 제공 여부를 인증하며, 그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서비스 약관을 간소화(서비스 개요, 정보의 종류 및 취득방법, 정보의 외부 제공 및 제공 기관 등을 명기)
- 수산청 어업조정위원회는 일본 주변 어장에서 잡아 올리는 참다랑어 미성숙어(30kg 미만)의 어획량을 2015년부터 기준치(2002~2004년 평균치의 15% 감축)보다 50% 감축할 방침
 -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이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, 한국 등 다른 국가가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며, 9월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(WCPFC) 소위원회

개최 이전까지 규제안을 각국에 제시

- 부흥청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교부금(2015년도 종료) 제도를 정부가 설정한 복구기간(2011~2020년)에 준하여 5년간 연장할 방침(마이니치 3.9)
 - (교부금 지급 대상) 피해 지자체 복구에 필요한 ‘기간산업(국토교통성, 농림수산성, 문부과학성, 후생노동성, 환경성의 40개 사업으로 한정)’ 및 기간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‘효과촉진사업’
 - 그러나, 현행 시스템(정부가 국고보조 또는 지방교부세 가산을 통해 사업비를 100% 충당)과는 달리, 연장 이후에는 피해지역 지자체에도 일정 수준의 재정부담을 요구할 계획
- 경제산업성은 2014.5월부터 온천수발전(지열발전의 일종)에서 발전설비를 보수·점검하는 ‘주임기술자’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(닛케이 3.10)
 -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는 연간 약 600만엔의 인건비와 공사계획 제출 및 검사에 드는 비용(수십만엔) 부담 경감 가능
- 모테기 경제산업대신은 특허취득심사 기간의 대폭 축소(29개월→약 14개월) 방침을 3.11 표명하고 지적재산의 활용을 주요 기업 전략으로 삼을 것을 강조(닛케이 3.11)
 - 일본의 특허심사기간은 중국이나 한국(약 22개월)보다 긴 편으로,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 사업 시작이 지연되어 투자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 때문
 - 특허출원에서 심사 착수까지의 기간이 특허청의 목표대로(11개월 이내) 추진 가능해짐에 따라 심사기간 전체의 단축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
- 일본 정부는 개도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·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할 계획(닛케이 3.12)
 - JICA가 현지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1개사 최대 5,000만엔까지 부담하여 기업의 신규 고객층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며, 3.13 지원 대상 3개사(신일본제약, 세콤 의료시스템, 리오)를 발표

나.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

□ 주간 경제지표 추이

(매일 15:00 기준)

	3.10(월)	3.11(화)	3.12(수)	3.13(목)	3.14(금)
환율(원/100엔)	103.10	103.19	102.87	102.59	101.80
환율(엔/달러)	1,032.94	1,030.98	1,041.80	1,042.66	1,056.53
닛케이평균주가(종가:엔)	15,120.14	15,224.11	14,830.39	14,815.98	14,327.66
장기금리	0.625%	0.625%	0.625%	0.640%	0.630%

o (엔·달러 환율) 주 초반 미국의 2월 고용통계 발표 이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했으나 일본의 통화정책 유지 발표,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 등의 요인 등에 의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

o (닛케이평균주가) 2013.4분기 GDP 성장률 개정치 하향조정 및 2014.2월 중국의 수출 대폭 감소 발표에 따른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이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3.12 15,000엔대를 밀돌았고, 3.13 거래량이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

□ 재무성은 2014.1월 국제수지(속보)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1985년 이래 사상 최대인 1조 5,890억엔(역대 사상 최대였던 2013.12월 6,386억엔의 약 2.5배)이며,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라고 발표(3.10)

o (무역수지) 엔화 약세로 인해 원유 및 LNG 등 연료 수입가격이 상승한 반면, 수출이 부진하여 2조 3,454억엔 적자(1996년 이래 최대)를 기록

- (수입) 전년 동월대비 30.3% 증가(15개월 연속)한 7조 8,620억엔

- (수출) 전년 동월대비 16.7% 증가(11개월 연속)한 5조 5,167억엔

o (서비스수지) 운송수지 및 여행수지가 전년 동월대비 적자폭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어 4,674억엔 적자를 기록

o (제1차 소득수지) 해외 자회사 주식의 배당수익, 채권 이자수익 증가로 1조 3,374억엔 흑자를 기록

- 재무성 「재정제도 등 심의회(재무대신 자문기관) 재정제도분과회」는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연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로 인해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‘쌍둥이 적자’를 우려

			2014.1월	2013.1월
무역 · 서비스 수지			▲2조 8,128억엔	▲1조 6,595억엔
	무역수지		▲2조 3,454억엔	▲1조 4,793억엔
		수출	5조 5,167억엔	4조 6,461억엔
		수입	7조 8,620억엔	6조 1,254억엔
	서비스수지		▲4,674억엔	▲1,802억엔
제1차 소득수지			1조 3,374억엔	(소득수지) 1조 2,284억엔
제2차 소득수지			▲1,136억엔	(경상이전수지) 663억엔
경상수지			▲1조 5,890억엔	▲3,648억엔

- 내각부는 2013.4분기(10~12월) 실질 GDP 성장률 개정치를 2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하향조정하여 전기 대비 +0.2%(연율 +0.7%)로 3.10 발표
 - ※ 2013년 GDP 성장률 추이(전기 대비) : 1분기 1.1%(4.5%), 2분기 1.0%(4.1%), 3분기 0.2%(0.9%), 4분기 0.2%(0.7%)
 - 괄호안은 연율 환산치이며, 4분기 성장률은 금번 개정치
- 주재국 언론은 4월 소비세 인상전 사전 수요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△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1.3% 증가 → 0.8% 증가로 대폭 감소했으며, △GDP의 60%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도 0.5% 증가 → 0.4% 증가로 하향조정 되면서 속보치 대비 대폭 감소했다고 분석
- 2013년 연간 GDP 성장률도 전기 대비 +1.5%로 속보치(1.6%) 대비 하향조정
 - ※ 연간 GDP 성장률 추이(전년 대비) : (2010년) +4.7% → (2011년) -0.5%, → (2012년) +1.4% → (2013년, 개정치) +1.5%
- 내각부는 2014.2월 경기관찰조사에서 선행판단 MI가 전월대비 9.0P 하락한 40.0으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으며, 현황판단 MI가 전월대비 1.7P 하락한 53.0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3.10 발표
- 또한, 경기는 ‘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으나 향후 소비세 인상 이후 수요 감소의 영향이 예상됨’으로 판단

- 일본은행은 3.11 「금융정책결정회의」에서 현행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고 경기가 ‘완만하게 회복중’이라는 전월 기조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
 - △수출은 ‘회복 경향’에서 ‘횡보권 내에 있음’으로 하향조정한 반면, △설비투자는 ‘회복이 명확해짐’으로, △광공업생산은 ‘증가가 다소 늘어나고 있음’으로 강화된 표현을 사용
 - 주재국 언론은 추가적인 금융완화의 시행에 대해 구로다 총재가 ‘현 시점에서는 필요없다’고 언급했으나, ‘필요할 경우 주저없이 조정할 것’이라고 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배려했다고 보도
- 내각부와 재무성은 2014.1분기(1~3월)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서 대기업의 BSI가 12.7(전기 대비 +4.4P)로 5분기 연속 플러스이며 중소기업의 BSI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(0.1)하여 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고 3.12 발표
 - ※ $BSI = (\text{전기 대비 체감경기가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}) - (\text{전기 대비 체감경기가 하락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중})$
 - (대기업 BSI) △비제조업은 소비세 인상전 소비 증가에 따른 소매업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12.8(전기 대비 +5.3P)로 사상최고를 기록했고, △제조업은 자동차 관련기업의 체감경기가 개선되면서 12.5(+2.8P)
 - (중소기업 BSI) 철강업계 등의 체감경기가 개선되면서 제조업이 2.9(전기 대비 +8.2P)
- 내각부는 2014.1월 기계수주통계에서 ‘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’ 수주액(계절조정치)이 8,435억엔으로 전월 대비 13.4%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기조판단을 ‘증가 추세에 있음’으로 상향조정(3.13)
 - 제조업의 수주액은 3,318억엔으로 전월 대비 13.4% 증가했으며, 비제조업에서는 전월 대비 12.1% 증가한 5,110억엔을 기록
 - 한편, 2014.1분기(1~3월) 기계수주가 전기 대비 2.9% 감소로 예상되는 바, 2,3월 기계수주가 각각 전월 대비 6.8% 감소 이상일 경우 예상치를 달성할 수 있고, 각각 전월 대비 3.8% 감소 이상일 경우 2014.1분기 수주가 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다. 산업 동향

- 2014년 춘계노사협상 집중 회담(3.12)에서 주요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을 단행하기로 결정
 - (주요 기업의 기본급 인상 현황) △자동차업계는 도요타 2,700엔, 닛산 3,500엔, 혼다 2,200엔, △전기·전자업계 2,000엔, 철강 및 조선·중공업계 2년간 2,000엔
 - △요네쿠라 경단련 회장은 “많은 기업들이 임금 개선 요구에 나섰으며,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” 이라고 했고, △아마리 재정대신은 “사측이 기대 이상으로 응해주었다” 고 언급, △렌고의 고즈 사무국장은 “매우 좋은 출발” 이라며, 각계에서 금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 - 한편, 경제산업성은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기업(약 1,800개사)이 임금인상을 단행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(회사명 포함)할 예정

2.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

가. 경제통상

- 제4차 한중일 FTA(3.4~7)에서 관세철폐 등의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이 종료(닛케이 3.8)
 - 언론은 협상 직후 일측 관계자들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나 한중 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, 2014년말 실질합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분석
- 일본 정부는 TPP 협상에서 수산물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(닛케이 3.13)
 - 호주산 다랑어, 캐나다산 게, 페루·칠레산 어분(魚粉), 베트남산 새우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
 - 한편, 김과 미역의 수입관세는 한국이 TPP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,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
나.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

- 고베제강소는 Paul Wurth사(룩셈부르크)와 제철 설비사업 부문에서 제휴를 맺었다고 3.10 발표
- 고베제강소가 Paul Wurth사에 천연가스 플랜트의 설계 및 건설 기술을 제공하게 되며, 세일가스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천연가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·중동 등 지역에서의 수주 확대를 목표

3. 일본의 과학기술 동향

- 히타치제작소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작업에 사용될 두 종류의 로봇(형상 변형하며 이동하는 타입, 수중에서 지하수 유출 지점을 찾아내는 로봇)을 개발했다고 3.10 발표
- 방사선량이 많거나 좁은 지역 등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원자로 내부에서 오염수 유출 부분 및 용융된 연료에 대해 조사할 목적
- 이화학연구소는 영국 네이처誌에 발표된 STAP(자극야기 다능성 획득) 세포에 관한 논문에서 여러 의문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, 집필자들의 동의에 따라 논문 취하를 검토중이라고 발표(닛케이 3.14)
- 다른 논문에서 사용된 사진이 사용되거나 사진에 조작 흔적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

끝.